# "배 성장촉진제 추방 원년" 말 뿐

## 일부 농가 "올 이른 추석 맞춰 수확해야" 촉진제 사용

## 市당국 수수방관…"나주배 이미지만 먹칠" 농민들 분개

나주시 농정이 졸속으로 추진돼 농가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등 겉돌고 있다.

나주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세계적인 '명품배' 육성을 위해 올해를 '성장촉진제 추방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시는 지난달 2일 나주배원협에서 배재배 농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촉진제 추방 원년 선포식'을 갖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성장촉진제인 '지베랄린' 사용 자제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성장촉진제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나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J(56·나주시 금천면)씨는 "지베랄린을 바르지 말자고 야단 법석을 떨던 나주시가 정작 사용 시기가 닥치자 농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올해는 추석이 빠른 만큼 농가들이 소득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베랄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나주시가 현실성이 뒤떨어진 정책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졸속 추진해 농정의 불신만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전 준비없이 지베랄린 사용 자제를 대외에 공포하는 바람에 나주지역만 성장 촉진제를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나주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나주지역의 경우 수확시기가 일주일 가량 빨라 타지역보다 지베랄린을 덜 쓰고도 매년 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나주배 원협 관계자는 "농가들이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소득 손실분에 대한 보존 등 다양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산림욕, 화순 만연산으로 오세요"

### 12ha에 정자 등 편의시설

### 야생화 9종 8만본 심어

화순군 만연산에 산림욕장이 문을 열었다. 〈사진〉

지난 22일 문을 연 만연산 산림욕장은 12ha 부지에 사업비 3억8천여만원을 들여 휴게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교육시설을 짓고 맥문동, 꽃무릇, 은방울꽃 등 야생화 9종 8만본을 식재했다.

만연산 산림욕장에는 산림욕대와 사각정자, 평상, 야외탁자, 팔각정자 등 편익시설물 7종(68개)과 평행봉,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섰다.

또 산림교육 공간으로 활용토록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식물 해설판도 설치됐다.

이밖에 만연산 정상 및 수만리 큰재, 수레바위산 등산로와 이어지는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도 개설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인삼·고구마 재배땐 작목 전환 지원금"

해남군이 채소류에 대한 작목 전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인삼과 고구마를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재배 농가가 작목 전환을 신청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삼의 경우 묘삼 구입비와 차광막 설치비 등 ha당 2천만원, 고구마는 우량 묘 생산 비닐하우스 시설비로 ㎡당 7천500원이 지원된다.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3년간 채소류 작목을 심지 않는 조건으로 군과 작목전환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국가 암관리 사업 공모 곡성군 '자조모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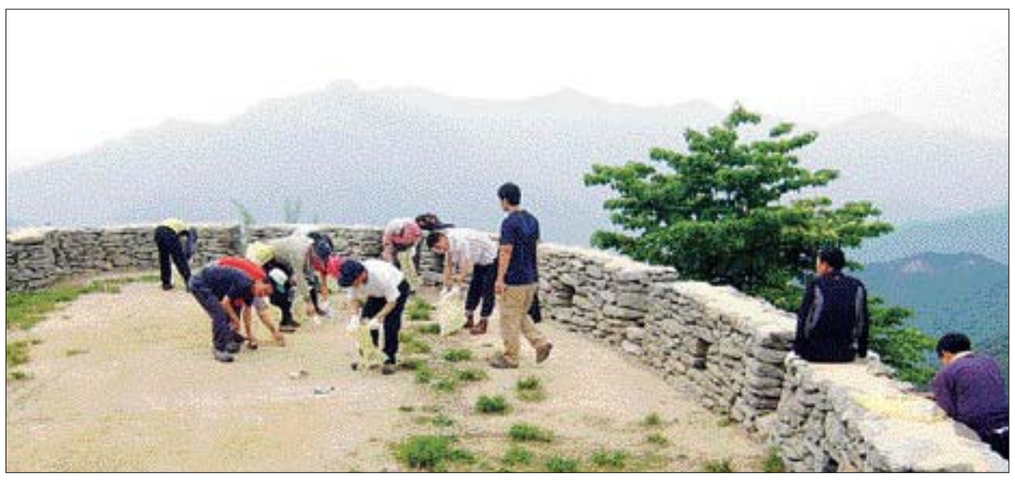
곡성군이 2008년 전남지역암센터(화순 전남대병원)가 실시한 공모에서 암관리사업 공동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전남지역암센터는 최근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분야(말기암환자관리사업, 자조모임, 교육·홍보, 암검진 및 기타)에 걸쳐 국가암관리 사업을 공모했으며 곡성군은 '자조모임'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곡성군은 매월 한차례씩 암 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남지역암센터는 자조모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6개월간 외래 교수와 직원들을 강사로 지원하는 등 곡성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 담양 '금성산성' 환경 정화활동



담양군청 공무원과 주민 등 200여명은 지난 23일 금성산성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지난 13세기에 축조된 담양 금성산성은 최근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조개 캐고 낙지 잡으며 신나는 어촌체험

### 강진군, 백사마을에 세번째 어촌생태마을

### 10억들여 갯벌체험장·공원·주차장 갖춰

강진만에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된다.

강진군은 올 연말까지 10억원을 들여 대구면 백사마을 일대를 어촌생태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백사마을 어촌체험장은 지난 2006년 조성된 대구면 하저마을과 다음달 완공될 마량면 서중마을에 이어 세번째 체험마을이다.

다도해 푸른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이 마을에는 갯벌체험장을 비롯해 소공원, 쉼터,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갯벌체험장에서는 조개와 낙지 등 어패류를 잡을 수 있는 데다 직접 그물질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어장체험, 수상낚시 등도 가능하다.

이 마을은 갯벌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강진만에 자리잡고 있으며 꼬막과 바지락, 낙지, 전어 등의 어패류가 풍부하고 주변에는 청자박물관과 마량항 등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강진군은 어촌체험 이외에 고추를 심고 고구마를 캐는 농촌체험과 미꾸라지 잡기 등 하천생태체험, 습지체험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친환경농자재 보조사업 제도개선 시급

## 제품 난립·검증 한계…적기 공급 어려워

친환경농자재 보조사업의 납품 및 공급과정이 허술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함평군은 전남도의 친환경 면적 및 인증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93억 원대의 친환경농자재를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규정이 허술해 사업 시행에 혼선을 빚었고, 농자재 난립으로 농민들이 제품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을 위탁하는 농협이 업체들의 제품 검증에 한계가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영농시기가 임박해 함평군 일부 농협의 경우 유기농 비료 등 일부 자재를 우선 공급한 뒤 납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양질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농자재 목록공시와 연구기관의 사전 검증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가짜 친환경 작물 걸러내자"

### 영광 농민들 자체조사 나서

"진짜 친환경 작물을 길러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본격적인 파종·이식기를 맞아 영광군 농민들이 가짜 친환경 작물을 걸러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영광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선대 친환경사업단 등 4개 전문 인증기관 및 친환경 명예감시원과 함께 관내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친환경 명예감시원에는 영광 지역에서 직접 친환경 농장을 가꾸고 있는 농민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친환경 농법을 조사하고 있다.

친환경 농법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아예 쓰지 않는 유기농을 비롯해 농약 없이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만 사용하는 무농약, 농약과 화학비료 살포 회수 및 기간을 제한하는 저농약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금까지 영광 지역에서는 무농약 농장 40곳(116ha)과 저농약 농장 155곳(2천406ha)이 인증을 받았다.

영광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수 조사를 벌여 인증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표시 사용을 정지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 "지사장이 책임 경영"

### 농촌공 전남본부 계약 체결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가 부서별 자율경영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지사장에게 부여하는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본부대회의실에서 18개부서 지사장과 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책임경영 목표 중간점검 및 계약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책임경영 계약에 따라 지사장은 각 지사별로 경영성과를 비롯해 계약관련 회계비리 등 모든 직무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전남지역본부는 분기별로 부서별 경영실적 및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해 이를 토대로 부서·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